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8期(2025.11.25) WWW.MINGHUI.ORG

한글판 1022호 minghui.or.kr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83만 0558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수련교류】 사부님의 감당을 보고 느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원망 등 집착을 내려놓다

【중국법회】 매일 진상을 알리며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다

【중국법회】 묵묵히 원용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하는 경지로 수련하다

【중국법회】 동북 작은 도시의 자료점이 걸어진 길

【중국법회】 두려움을 버리고 관념을 바꾸어 널리 중생을 구하다

〈목 차〉

■ 수련교류

사부님의 감당을 보고 느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원망 등 집착을 내려놓다	3
구세력이 대법제자 신분증에 한 표시를 타파하다	8

■ 중국법회

92세 할머니가 한 마음으로 수련하며 사람을 구한 이야기	12
시간을 아껴 법공부하고 기회를 잡아 사람을 구하다	21
매일 진상을 알리며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다	32
묵묵히 원용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하는 경지로 수련하다	44
여러 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기술 수련생이 되다	57
동북 작은 도시의 자료점이 걸어온 길	65
두려움을 버리고 관념을 바꾸어 널리 중생을 구하다	71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며, 사존께서 한 걸음씩 무궁한 법력으로 저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기하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법률 방식으로 법을 실증하는 과정 속에서, 공의포럼 수련생들과 주변 수련생들의 전체적인 협력, 그리고 저 자신의 실제 수련 과정에서의 승화가 있었습니다. 매 단계를 착실히 밟고, 관념을 전환하며, 중생을 구하고, 법이 인간 세상을 바로잡는 정법(正法) 노정에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실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법이 창조한 기적입니다. 중생들은 높은 차원에서 왔으며, 그들에게는 모두 깊고 두터운 근기가 있습니다. 그 양심과 선념, 지혜와 이성만 단지 티끌에 가려져 있을 뿐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방식으로 이 티끌을 털어내어 중생들이 광명과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마지막 멸망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학 기술이나 영웅적인 인물도 대세를 만회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류 전체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뿐이며, 파룬궁이 전 세계에서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시(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의 균열이 이미 열렸고, 당신은 추락해 들어가는구나. 나는 크게 웃으며 뒤따라가 당신의 궤가에 속삭이네.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자, 친구여!’ 이것은 공산당(마르크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판결을 내릴 때 모두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고, 집권당의 영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따라야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도입니다. 만약 명령이 잘못 내려진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영도이며 교사(敎唆)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도를 당신이 따랐다면 위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면 관계상 일일이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삼퇴했고 저에게 앞으로 파룬궁 사건을 만나면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심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심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과 법관 이 두 생명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맺음말

대법 속에서 수련한 십수 년 동안,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한 청년에서 사존의 대법에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대법제자로 성장했습니다. 부평초 같던 생명에서 우주의 중생을 구하는 무거운 책임을 주동적으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주 대법이 저를 성취시키고

수련교류

사부님의 감당을 보고 느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원망 등 집착을 내려놓다

글/ 미국 수련생

[명혜망] 나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수련생이고 대법(大法)을 수련한 지 5년이 됐다. 2025년 11월 첫째 주, 퇴근하고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까지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천목(天目)으로 일부 장면을 보게 됐고 즉시 제자들을 위해 업력을 감당하시는 사부님의 고통을 아주 철저히 이해하게 됐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업력을 감당하신다는 이 일은 예전부터 수련생과의 교류, 그리고 ‘전법륜(轉法輪)’의 설법과 법회에서의 많은 설법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지 표면적인 글귀를 듣고 읽고 이해한 것이었고, 귀로 듣고는 이미 이해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마치 사부님의 감당을 알고 철저히 느낀 것 같았다.

이때 내가 본 사부님의 감당은... 나는 그 고통을 느꼈는데,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었다. 나는 사부님께서 단지 제자를 위해 업력을 감당하시는 것만이 아님을 보았다. 층층 공간의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고 층층 우주의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던지, 사부님께서 낮은 층에서 최고층까지 모든 생명을 위해 업력을 감당하고 계셨다! 고층의 업력은 훨씬 더 무서웠다.

나는 갑자기 그 원인을 철저히 이해했다. 사부님께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정법(正法) 과정을 유지하고

가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 최고층이 이미 부패했고 사부님께서는 파괴가 아닌 정법을 원하시기에, 이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 당시 경험은 이미 일주일 넘게 지났다. 이것을 적고 있는 지금은 이미 냉정해졌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기에, 내가 본 장면에서 깨달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보충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본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 나는 사부님께서 감당하시는 고통이 예수님보다 몇 배나 더 많은지 모를 정도임을 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전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는데 마치 간질 발작 같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목 놓아 울었는데 소리 내어 크게 울었고 억제할 수 없었다.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울었다.

잠시 후 나는 이를 공유하고 또 주의를 분산시켜 진정하기 위해 Q 수련생(나와 자주 교류하는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Q는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가 비정상임을 알아채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나는 사부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이 예수님보다 더 많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 울었다.

예수님의 감당은 이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맵소사, 사부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사부님의 이 몸이 전 우주를 위해 최고층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구상할 수 없다. 여기까지 쓰는데 또 눈물이 난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흐른다. 막 발생했을 때 나는 확실히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내 머리로는 이렇게 거대한 일을

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심으로 이 생명, 이 법관을 위해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느꼈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선량함과 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정도에서 볼 때, 상급 기관의 책임 추궁은 이 생명 스스로가 상급 명령을 집행할 때 이 사건을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반성하게 했고,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다른 공간의 사악함이 그를 통제하는 것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그는 정말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우리의 교류는 솔직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 법관은 자발적으로 저를 도와 원장과 연락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원장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법률 문서를 신중하게 보았다고 하면서, “당신은 대학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저는 정말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당신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법률적 준비 작업을 했고, 당신과 모(某) 재판장 같은 전문적인 분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교류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이 한 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오성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금 사회의 각종 혼란상,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는데, 이는 과거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적 없는 심각한 정도이며, 인류 전체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코로나19)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과학자가 설정한 종말 시계는 이제

일을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때가 왔다고 느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접촉했는데 저는 당신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이 저희 가족에게 억울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정말 하고 싶은 한마디는, 당신이 앞으로 (모함당한) 파룬궁 사건을 말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약간 놀라면서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배정되었으니 제가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남방의 법관에게 배워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남방의 한 재판장이 (모함당한) 파룬궁 사건을 처리할 때 그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룬궁 사건을 나에게 심리하게 하면 무죄가 될 겁니다. 유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하게 하십시오.’ 그 결과 ‘610’, 정법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중 아무도 심리하러 오지 않았고, 사건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공산당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풍이 지나가면 누가 이전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 책임질까요? 바로 집행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형님, 당신은 이 일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줄곧 정신이 몽롱했다. 이어서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자주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대법 항목에 참여하고 수련생을 지지하며 가능할 때마다 참여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나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부님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부님의 희생은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함 그 이상이었다. 언어로는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공헌도 없다고 느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그저 거기에 앉아 사부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바다에 던진 소금 한 알 같았고 정말로 무력했다. 꼬박 일주일 동안 내 심정은 이랬다. 사부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나를 제고시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멍해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집착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마음에 어떤 반응도 없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예전 같으면 말다툼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조금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오늘 아내가 또 몇 마디 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부님께서 그렇게 거대하게 감당하시는데, 나는 고작 작은 집착 하나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 새로운 층차로 돌파할 때 고비가 있고 집착심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나의 현재 과시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정말 부끄

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과시하려 하는데, 사부님께서는 전 우주를 위해 낮은 곳에서 최고층까지 감당하고 계시는데도 아무도 모른다.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아마 많은 수련생이 알고 있고 나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내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쓴 것이다. 게다가 사부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원망도 없으신데, 나는 뜻대로 되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원망심을 품었다. 비록 내 원망심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정말 이때가 되어서야 나는 근본적인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전법륜)가 도대체 어떤 경지인지 진정으로 체험했다. 예전에 나는 내가 이미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고,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달려나가 남과 싸우고 있었다. 여전히 암시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좋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단지 사포로 문질러 표면을 더 매끄럽게 했을 뿐이었다.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진정한 수련인이 도달해야 할 기준에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았고, 나는 정말로 매우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또 나의 사상업(思想業)을 보았다. 이제 나는 왜 생각만으로 업을 짓는지 알았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서 막 그 사람을 싫어하려 하면, 다른 공간의 나는 이미 그를 공격하고 도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좋지 않은 생각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좋지 않다’는 것을 몰랐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그 나쁜 것이 이미 그 일을

‘불법적인 해석’들을 하나하나 격파했습니다. 범죄 네 가지 요건 불성립, 저의 기록 열람권 불법 제한, 심리 법원의 관할권 없음, 그리고 법관과 검사가 제가 제기한 ‘사례로 법을 해석해 달라는 신청’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점 등이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저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충분하며 의롭고 엄숙하게 말했고, 그가 모두 귀담아듣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철두철미한 억울한 거짓 재판이며,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이는 공안, 검찰, 법원의 위법적인 사건 처리 과정입니다. 당신들 법원은 《형법》 제300조의 사법 해석에 따라 파룬궁에 유죄를 선고하지만, 《형법》 제300조의 사법 해석은 《형법》 제300조 자체와는 완전히 무관하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이고, 입법권은 오직 인민대표대회에만 있으므로, 당신들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거나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위법입니다.”

저는 법관이 점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610(파룬궁 박해 전문기관)이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상급 검찰원 지도자가 저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법관은 판결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서명은 당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고 당신이 서명하는데, 나중에 추궁당할 경우 아무도 당신의 서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 당신은 이

상처와 사회적 해악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파룬궁 사건이 누명을 벗지 않는 한, 파룬궁 명의의 형사 사건의 존재는 중생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계속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곧 반응이 왔습니다. 법관이 저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해 상급 기관에서 제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법원에 와서 저의 항소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련생들은 제가 법원에 간다고 듣고는 문제가 생길까 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본래 저의 정념은 매우 강했고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수련생들의 염려를 보니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물질이 떠올랐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저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았지만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설령 칼산이나 불바다라 할지라도 오늘 가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고 법관이 나에게 연락했으니 가서 진상을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당시 주심 법관의 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상급 기관의 책임 추궁 압력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전에 오랫동안 전화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는 저의 법률적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비교적 평화로웠고, 법관은 절차에 따라 제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관련된 여러 불법적인 점에 대해 제출한 고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에게 ‘법률적인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공의포럼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그럴듯한

하고 있었다. 이 점을 의식했을 때 나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함부로 움직일 엄두를 못 낸다. 법을 읽고 법공부할 때만 안전하다고 느낀다. 집안일을 할 때 예전에는 아내가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자주 짜증을 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나오자마자 얼른 배척해 버리고 기분 좋게 계속 일한다. 예전에 내가 가정과 외부에서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알게 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인식한 것이 아직 많지만, 전부 기억해서 지금 적을 수는 없다.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전부 기억할 능력이 없어서 단지 아주 조금만 공유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사부님께 내가 매우 노력하고 엄숙하게 수련해 진정으로 집착을 없애고 그런 사람 마음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정말 예전처럼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자신도 대법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대법을 보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져 정말 부끄럽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는 정말 위대함 그 이상으로 위대하시다. 나는 정말 너무나 행운이다. 무슨 말을 해야 어울릴지 모르겠고, 단지 대법 중에서 수련하도록 허락해주신 사부님께 만 번의 감사를 드릴 뿐이다. 이상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며 꾸밈없이 적어서 공유하니 수련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구세력이 대법제자 신분증에 한 표시를 타파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공 악당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박해한 이후 중생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나는 모든 사악을 부정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할 때도 나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갔다. 몇 년 전, 나는 언니(수련생)를 베이징으로 데려다줬는데 짐가방에 대법 서적 한 세트를 넣고 보안검색을 통과할 때도 아무 일 없었다. 대법 서적은 어떤 생명도 감히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생은 대법에 동화되려 온 것인데 누가 중생에게 대법에 대해 죄를 짓도록 강요한다면 나는 그를 제거할 것이다. 사악은 중생을 박해하지만 우리는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니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보안검색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늘 중생의 안위를 생각했다.

10여 년 전, 한 언니가 타지에 아이를 보러 가려 했는데 어떤 수련생이 기차를 타지 말라고 했다. 표를 살 때 매표 창구에서 신분증을 스캔하면 자신에게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우려도 있다는 것이었다. 언니가 나를 찾아와 이 일을 이야기하자 나는 “사악의 박해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치욕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표를 사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중생은 모두 법을 위해 구원받으려 온 거야. 우리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중생을 구하려면 정념이 있어야지 중생을 대법의 대립면으로 밀어내서는 안 돼”라고 말했다.

언니가 “오후에 같이 표 사러 가줘”라고 말했다. 나는 “알았어”라고 했다. 역 매표 창구에 도착했을 때 우려하는 마음을 가진 다른 여자 수련생을 만났다. 우리가 간단히 교류하자 그 수련생도 이

제가 처음 주심 법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파룬궁 사건인데도 감히 나에게 전화를 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당신은 변호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스스로 이치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고, 앞길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오직 저의 작은 신념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수많은 밤낮을 저는 공의포럼 수련생들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법률 문서를 수정하며, 사람 속의 미세하고 심각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저의 관념을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며, 오직 대법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왔지만 이번에 함께 구금됐던 많은 다른 수련생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에 저의 법적 책임 추궁의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 때까지 계속해서 법률 문서의 형식으로公安, 검찰, 법원의 책임자들을 추궁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다른 수련생들도 긴 형기를 선고받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그들은 “처음에는 사악한 기세가 매우 거대하여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련생들의 정념정행(正念正行)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법률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하며 내외가 협력하자 다른 공간의 악이 해체됐음을 인식했습니다.

4. 진심으로 생명을 위하자 법원장이 삼퇴하다

그 후 수련생들은 비록 차례로 돌아왔지만 사건이 모두에게 준

(悟性)을 높여주시기 위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확신이 섰습니다.

나중에 저는 본 지역, 본 성(省), 타 성의 저명인사들에게 우편을 보내 사악함을 폭로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박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힘이 닿는 대로 정의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정념은 점점 강해져서 종종 제가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에너지가 온 우주를 뒤덮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의 상태는 이미 처음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던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는 법 속에서 실제 수련한 결과이며,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과정에서의 승화입니다. 사온(師恩)이 드넓으시니 이 모든 것은 사존께서 제자를 한 걸음씩 이끌어 오신 결과입니다!

3. 앞길을 모르던 상황에서 효과가 있기까지

아내는 저희의 끈질긴 권리 수호 끝에 몇 달 후 돌아왔습니다. 한 여검사는 처음에는 태도가 매우 사악하여 제가 전화를 걸면 “파룬궁은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발행해 당에 반대한다! 당신들의 책에는 모두 반당 내용만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저에게 말하기를, 석방되기 전 그 검사가 직접 “당신의 이 사건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서 본래 무죄 석방돼야 하지만, 당신을 돌려보내면 우리가 국가 배상의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되므로 당신에게 가장 낮은 몇 개월을 선고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그녀의 태도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습니다.

해했고, 두 사람은 당당하고 순조롭게 차표를 샀다. 역을 나온 후 언니는 “대법제자는 뜯소문을 들으면 안 되고 착실하게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어야 해”라고 말했다.

몇 년 전 10월 초 연휴 때, 나는 아이, 친척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 신분증 보안검색을 기다리는데 형부가 “명절이라 차가 많을수록 이런 걸 더 하네”라고 말했다. 나는 당시 별생각 없이 “그러게요, 할 일이 없나 봐요”라고 맞장구쳤다. 당시에는 이 말의 결과를 생각지 못했고 이 바르지 못한 일념을 즉시 바로잡지도 못했다.

잠시 후 한 경찰이 신분증 스캔 단말기를 들고 오더니 내 신분증을 스캔하고 아주 공손하게 돌려줬다. 그러나 그는 뭔가 생각난 듯 다시 내 신분증을 가져가 스캔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를 옆으로 대세요. 신분증에 좀 문제가 있네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방금 나의 선하지 못한 일념이 중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나는 즉시 정념을 발해 다른 공간에서 이 일을 조종하는 사악한 생명을 해체했다. 나는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법에서 자신을 바로잡았다.

잠시 후 나이 든 경찰이 오더니 웃으며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라고 말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를 따라 사무실로 갔다. 방에 들어가니 책상 두 곳에 신분증 스캔 단말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 기기들을 향해 ‘나는 대법제자다. 사부님 관할이다. 너희는 내 관할이다. 너희는 대법에 동화해야 하고 사악에 협력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좋은 미래가 있다. 나는 너희가 내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때 그 경찰이 내 신분증을 스캔하고 있었는데 기기 몇 대를 써봐도 다 안 됐다. 그는 혼잣말로 “이상하네,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왜

다 안 되지?”라고 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때 나는 신분증 안에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기에 그들이 신분증만 스캔하면 누가 파룬궁수련생인지 알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내가 다른 책상 위 기기를 가리키며 “이걸로 해보세요”라고 했다. 그는 몸을 돌려 그 책상으로 갔다.

내가 그에게 “이 신분증에 무슨 정보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가 컴퓨터를 가리키며 “보세요”라고 했다. 보니 개인 신상 정보가 다 있었다. 그가 그중 한 칸을 가리켜 보여줬는데 ‘관리 대상자’란에 ‘파룬궁’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만약 청원하는 청원인이려면 ‘청원인’이라고 표기돼 신분증을 스캔할 때 다 뜨는데 일반인은 표기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는 “일반 서민이 할 일 없이 청원하겠어요? 억울하니까 청원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 악당의 행태에 아주 반감을 갖고 있어서 자기 딸은 경찰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소속이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했다. 또 민감한 시기만 되면 악당이 휴가도 못 가게 하고 밤낮없이 야근시키면서 수당도 안 준다고 했다.

그는 내 거주지 국보대대와 연락해 나를 보내줘도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나는 그들 관할이 아니다. 나는 오직 우리 사부님 관할이다. 나와 관련된 사람은 다 내 관할이며 사악이 중생을 박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국보대대에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우린 상관 안 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요”라고 했다. 전화는 끊어졌다. 그 경찰은 꽤 놀랐다. 다시 걸었지만 아예 통화가 안 되고 아무도 받지 않아 나는 계속 길을 갔다. 내가 떠날 때 그는 “앞으로 외출할 때는 저녁 6시 이후에

이 박해가 인류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 그리고 박해가 발생한 더 깊은 역사적 원인을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저의 사고는 점차 명료해지고, 변이된 물질도 제거됐으며, 박해당하고 스스로 힘이 미약하다고 느끼던 물질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박해받고, 스스로 무력하며, 사악한 자들이 이치에 맞지 않고 자신은 이치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피동적인 역할에서, 점차 이성적이고 맑은 정신, 강력한 에너지, 악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 마가 아무리 높아도 도는 한 길 더 높다는 주재자(主宰者)로 변모했습니다.

수련생의 글 《경찰에게 법을 알려주어 중생이 난관을 헤쳐 나가게 하다》는 정말 잘 썼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궁(太穹)의 주재자이며, 우리는 법에서 얻은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 이 박해 속에서 거짓말에 가려진 공안, 검찰, 법원의 중생들을 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법률 문서 제출을 마친 후, 저는 대규모 우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 문서 우편 발송 시 저는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후 저는 택배 차량의 한 쪽에서 돌아섰습니다. 문서를 지나치는 순간 천목(天目)으로 두 줄기 빛이 먼 곳으로 곧장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간의 법률 문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악을 제거하고 있구나.’ 우리의 법률 문서는 다른 공간에서 바로 에너지, 법기(法器), 악을 제거하는 빛입니다. 어둠은 빛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악함이 어떻게 공(功)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이 일에 대한 제자의 오성

2. 이성적이고 맑은 정신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이 항목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 박해의 성격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법 절차가 모두 불법적이며, 죄명도 불법적이고, 절차도 불법적입니다(이 사건이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와 법원 심판 단계에서 비관할 부서, 즉 소위 전담 부서로 넘어간 것도 불법입니다).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와 법원 심판 단계의 많은 절차도 불법적이었습니다(예: 합법적인 안건 사유 없는 가택수색, 사복 경찰, 경찰 신분증 및 관련 문서 미제시, 기록 열람 저지, 재판 시 증거 질의 회피, 4가지 요건 불성립, 재판 전 친우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등).

그렇다면 각종 법률 문서를 통해 과정 속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발장, 법률 의견서, 진술 의견서, 무죄 증거 조사 신청서, 사례로 법을 해석해 달라는 신청서, 기피 신청서, 법관 정원 철회 신청서, 사건 철회 신청서 등 일련의 법률 문서들은 서로 다른 형식과 특징으로 전체 절차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각 문서는 서로 다른 불법성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진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층층이 심화되면서 사실, 법률, 도리, 전통문화 등의 각도에서 파룬궁 사건의 전후 사정, 국내외의 파룬궁에 대한 태도 차이, 삼퇴(三退,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하는 것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박해의 불법성과 악당의 사악함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저는 각 법률 문서에 각기 다른 진상 내용을 담아, 중생들에게 다른 측면과 각도,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박해의 불법성과 파룬궁이 나라와 국민에게 이로운 객관적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보안검색을 통과하세요. 그 시간엔 퇴근하니까요. 아침저녁 보안검색은 피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한 후 계속 길을 갔다. 차에 앉아 나는 신분증에 표기된 정보와 경찰이 저장한 정보를 의념(意念) 공능(功能)으로 모두 지워버렸다. 악당이 저지른 이 모든 것은 위법이며 구세력이 조종하고 배치한 모든 것은 우주 정법 이치를 위반한 것이고 정법에 대한 범죄다. 대법제자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고 있는데 구세력은 오히려 중생이 구원받는 데 겹겹이 저항력을 설치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 모든 사악한 배치를 제거하고 해체해야 한다.

10월, 나는 베이징에 언니를 보러 갔다. 고속철도를 타고 집에 오려는데 고속철도역에서는 어떻게 신분증을 검사하는지 보고 싶었다. 보안검색을 기다리면서 검표원 옆에 서서 그가 어떻게 검사하는지 지켜봤다. 검표원 손에 든 신분증 스캔 단말기는 손바닥만 했고 중간에 1인치 크기 액정 화면만 있어서 많은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고 ‘관리 대상자’라고만 떴다. 상황을 파악한 후 나는 수련생과 함께 보안검색을 통과했고 차에 탈 때도 똑같이 신분증을 스캔했다.

나중에 수련생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소 인간세상의 가짜 이치에 제약받는 것을 본다. 이 글을 쓴 것은 수련생들에게 인간세상의 이런 가상은 대법제자에게 어떤 작용도 일으키지 못하며, 우리는 충분히 정념으로 이 층 공간의 물질을 제약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우리의 정념, 정행(正行), 바른 사유로 중생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전(史前)의 서약을 실현하자.

법(法)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 중 국 법 회 ■

92세 할머니가 한 마음으로 수련하며 사람을 구한 이야기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선 지 20여 년이 됐고, 올해 아흔두 살입니다. 저는 교류 문장을 써본 적이 없고 쓸 줄도 모릅니다. 이번에 명혜망에서 중국 대법제자를 위해 법회를 여는데, 저는 제 수련이 좋은 나쁘든 사부님께 제 수련 상황을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말, 한 친구가 제게 공법을 배우라며 자기 집에 세 사람이 와서 배우니 저더러 같이 배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 어떤 공법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저를 부르러 왔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럼 가보거나 하자고 했습니다. 첫날 포륀(抱輪)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전 못 배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저를 부르러 왔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럼 가서 배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대법서적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녀가 제게 《정진요지》 한 권을 주며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읽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업력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읽을 때, 한 줄의 글자가 빛을 냈습니다. 저는 전구 문제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 전구를 봤습니다. 보니 전구는 문제가 없었고, 저는 어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 읽고 책을 친구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제게 어떤 사람이 《전법륀(轉法輪)》 한 권을 청했는데 그 사람이 배

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의 근원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은 분명히 상대방이 강하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저는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구세력(舊勢力)이고,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 뒤에는 사부님께서 계시고, 저는 수련인이며, 반신(半神)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의포럼의 법률 전문가 수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쓰기 시작했고, 공안국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일반인 명의로 청원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는 친우 변호인 자격을 신청했고, 이 신분으로 다양한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포럼에는 《법률을 잘 이용하여 박해에 저항하는 친우 참고자료(善用法律反迫害親友參考資料)》가 있는데, 내용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박해 사건 발생 후, 박해 피해자의 가족이 공안,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양식도 있어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후 저는 단계마다 이 파일에 있는 각 단계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을 대조해 잘 썼고, 모르는 것은 포럼에 가서 수련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매우 많고 풍부했는데, 저는 주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쓴 문서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처음 몇 페이지에서 나중에는 두꺼운 한 묶음이 됐고, 다각도에서 진상을 알리는 진상 묶음이 됐습니다.

점을 인식하니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잤는데, 제가 산꼭대기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손으로는 붙잡아도 올라가지 못하자 수련생이 저를 끌어올려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내가 중공 악당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내가 사건을 겪기 전에도 저는 이미 다른 납치된 수련생들을 구출하는 것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생이 쓴 악인을 고발해 박해에 저항하는 글을 보았고 매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생의 가족들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박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이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제출하면 박해받거나 보복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직접 겪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가택수색을 당한 집 안에서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법륜(轉法輪)》을 펼쳤는데, “그는 본성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뱀으로 변해 나에게 소란을 피워댔다. 내가 보니 너무나도 말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손에 잡고 매우 강대한 일종의 공, 화공(化功)이라는 것으로 그것의 하반신을 녹여 물이 되게 하자, 그것의 상반신은 도망쳐 버렸다”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존께서 저에게 마(魔)를 제거하라고 계시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의 법의 계시가 있자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우지 않는다고 알려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9년 1월, 저는 길에서 《전법륜》을 배우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청한 책을 지금 안 배울 거면 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바로 가져다줬습니다. 책의 정가가 12위안인 것을 보고, 저는 집에 가서 12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전법륜》을 읽었는데 모르는 글자가 많아서 적어 두었다가 수련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막 모르는 글자들을 익혔을 때 수련생이 저더러 법공부 팀에 가서 단체 법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간 법공부 팀은 공장 사무실에서 공부했는데, 수련생들은 매우 진지하게 법공부를 했습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의 집에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인연이 없어서 법을 늦게 얻었을까. 이왕 법을 얻었으니 열심히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돼 설이 됐습니다. 음력 정월 초이렛날, 저는 어린이 공원 연공장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서 좋았고 사부님께서 제 몸을 정화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 공원에서 석 달 남짓 연공할 무렵, 하루는 아침에 연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몹시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는데 사부님께서 제게 세 가지 문제를 내셨습니다. 하나는 살생 문제, 하나는 불이법문(不二法門) 문제, 다른 하나는 사부님을 믿는 문제였는데, 저는 모두 맞혔습니다.

저는 대법을 늦게 배웠고 깊이 있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전법륜》을 겨우 열여덟 번 읽었을 때, 1999년 7월 20일이 됐습니

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하늘을 뒤덮을 듯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주민위원회의 한 여자가 파출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 대법서적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대법서적이 없으니 법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을 늦게 얻었기에 아무도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5월 말, 한 노수련생이 제게 “사부님 경문이 왔어요. 《심자명》이에요”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한 부를 베껴서 그날 밤 바로 외웠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 저는 진상 자료 한 장을 주웠는데,公安·검찰·법원 관계자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니 참 좋아서 한 수련생에게 “이것 좀 봐요. 우리 이거 인쇄해서 나눠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밤이 돼 저희는 복사 가게 한 곳에 갔는데 막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저희 것 좀 인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뭘 인쇄하려고요?”라고 묻기에, 저는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인쇄만 해주세요. 돈은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40부를 인쇄해 줍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파출소 두 곳과 학교 세 곳의 입구에 가서 각각 한 장씩 배포했습니다. 남은 것은 밤에 수련생과 함께 나눠주러 나갔는데, 진상 자료가 적어서 단지 세 개 단지에만 배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른 수련생이 알고는 “다시는 나가서 인쇄하지 말아요. 내가 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수련생과 함께 진상 자료를 배포했고 다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공에 아홉 번 납치됐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어느 날 밤, 저와 수련생,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 세 사람이 도로

오직 헌신과 책임, 그리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신성함과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힘든 헌신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서약을 실현하며, 이 지역의 중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가 흘렀고, 자료점은 수련생 그리고 현(縣) 전체 수련생들과 함께 온갖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자료점은 이 작은 마을에 평온하게 서서 대법제자들이 걸어온 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두려움을 버리고 관념을 바꾸어 널리 중생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2011년부터 대법(大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근 2년간 법률 방식으로 법을 실증한 수련 체득을 글로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저와 아내(수련생) 사이에는 한때 갈등이 매우 컸고 저는 그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련생과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원망심을 내려놓고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이 내가 중시해야 할 일이지, 남이 어떻게 하는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중생에게 진상을 알릴 때, 상대방의 인품이나 행동에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가족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때문이며, 이는 사(私)와 정(情)이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두 줄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밥공기만 한 커다란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한 사람이 앉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가까이 가자, 어느새 제 손에는 복숭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선택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를 격려해주신 것이다. 나무 아래에 계셨던 그분은 사부님으로서 제자를 지켜보고 계셨다.’

얼마 후 또 수련생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자료를 만들 때는 만들기만 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련생이 갑자기 요청한 거라 배달 담당 수련생은 몰랐습니다. 수련생이 사람 구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어서, 저는 직접 만든 자료를 들고 수련생에게 가져다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길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순찰차와 완장을 찬 감시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들고 있다가 걸리면 말할 것도 없고, 혼자 가다가 붙잡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걱정을 할 겨를이 없어 자전거를 타고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빨리 수련생에게 자료를 전달해 사람 구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키는 사람이 없어 저는 재빨리 올라가 자료를 수련생에게 주었습니다. 수련생도 저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사부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배치해 놓으신 것이고 단지 우리가 어떻게 건느냐를 보실 뿐입니다.

자료점 수련생들은 모두 묵묵히 헌신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모두가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급여도 없고 보수도 없으며,

변 전봇대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붙이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우리를 잡아갔고, 어디 사는지 심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 대법서적과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부 수련생을 돌아가게 해 대법서적과 자료를 챙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사람 돌려보내세요. 다 제 일이에요. 저만 여기 있으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두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불법 심문이 끝난 후 우리를 그들의 숙소로 가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기 전, 저는 문밖에서 사람 하나가 들어와 제 앞 1미터 거리에 서서 제게 ‘사람과 각자의 구별’(홍음-사람과 각자의 구별)을 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막 다 외웠는데, 사부님께서 제게 사람이 아닌 각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니 저는 반드시 잘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들어왔던 사람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마침 아침 5시 정각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경찰이 저를 데리고 나가 먼저 불법적으로 제 집을 가택수색했고 이후 우리를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어차피 들어왔고, 저 부부 수련생은 둘 다 고생하는데 나는 혼자이니 내가 감당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저를 불법 심문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그녀의 자료는 다 당신이 썼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당신 자료는… 짐작건대 누가 썼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더러 ‘짐작하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네요. 짐작건대 당신들이 준 것 같은데, 맞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돌아가시오”라고 했습니다.

2005년, 저는 또 납치돼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제가 때가 돼도 집에 오지 않자 아이는 또 일이 생긴 것을 알고 사부님

법상과 대법 물품을 전부 숨겼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에 가부좌를 하니 사부님께서 제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입도 움직이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은 제가 수련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대법서적을 숨기고는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땅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제발요, 엄마. 수련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도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마지막에 저는 “일어나거라. 나는 대법을 수련하기로 확고히 정했다. 네가 엄마가 필요하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방법이 없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엄마, 법공부하고 연공하는 건 저희가 상관 안 할게요. 다만 밖에만 나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는 저를 막는 사람이 더는 없었고, 저는 당당하게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엄마, 요즘 며칠간 단속이 심하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알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길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아파트 입구에 배포했습니다. 나중에는 농촌에 가서 집집마다 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장에 가서 자료를 배포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습니다. 이후 공사장이 줄어들자 저는 시장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으며 지금까지 이어

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저는 외시경으로 살짝 보니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고 곧 그 여자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기척조차 내지 못했고 창가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제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저는 발정념을 강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법공부와 발정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 수련생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시 각 아파트 단지 모두 봉쇄가 극도로 엄격했고, 출입하려면 핵산 검사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 위험을 자초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안전만 생각해서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마음이 편치 않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사부님 법상(法像) 앞으로 가서 사부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여쭙습니다. ‘사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보는 동안,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련생을 위해 자료를 만드는 것, 이것은 내 책임이며 내 사명이다.’ 이 시기에 수련생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드문 일입니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련생이 필요하다면 나는 하겠다.’ 그리고 저는 문을 열고 자료를 만들러 나갔습니다.

문밖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탁 트이고 사악이 멀리 물러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조롭게 자료점에 도착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넓은 밤길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복숭아나무

몇 년 뒤, 자료점에 소모품을 들이는 일을 맡은 수련생이 경찰에게 미행을 당하면서 자료점이 파괴됐고, 자료점이 수색당하고 두 명의 수련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省)의 사악한 무리는 공을 세우기 위해 이 사건을 ‘대형 사건’, ‘중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도시 전체가 먹구름이 드리운 듯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수련생이 자료점과 연락이 닿는 수련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수련생에게 일이 생겼고 자료점도 파괴됐지만, 우리에게 자료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쓸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련생의 순박함과 사심 없음은 오직 대법이 만들어 낸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련생들의 정성 어린 준비 속에서 자료점은 다시 조용히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한 번 대규모 대법제자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 수련생 집의 빈 건물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통제가 점점 강화돼 고성능 확성기가 도로에서 하루 종일 울려대며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고, 외출 시 반드시 이것저것을 지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도 매일 신분증을 가지고 핵산 검사를 하라며 재촉했고, 어떤 날은 하루 두 번씩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핵산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때문에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2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에서 누군가 “아래로 내려와 핵산 검사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2층, 핵산 검사하세요”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자 저는 더 긴장됐습니다. ‘내가 검사하지 않은 걸 들었나?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래에서 한참을 외치

오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어느 현(縣)의 시장에 가서 삼퇴를 권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경찰차 안에서 바로 정념을 발해 그들 공간장의 사악을 해체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제게 “이름이 뭐요? 성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은 이름이 뭐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 성은 ○이고, 소장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날 여기에 왜 데려왔나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 자료를 배포해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평안을 지키도록 한 것뿐인데 뭐가 나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찾고, 사심 없이 이타적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나중에 생각하는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들 모두 휴대폰이 있죠. 꺼내서 바이두 웹사이트를 열고 ‘장자석(藏字石)’ 세 글자를 쳐보세요. 그 위에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라는 여섯 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산당은 온갖 나쁜 짓을 다해 하늘이 공산당을 멸망시려는 것이지 사람이 새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운동마다 탄압한 사람이 누구니까?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해서 외국에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이 그를 법원에 고소하고 수배하니, 그는 일부 국가에는 감히 가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말해보세요. 누가 바르고 누가 사악합니까?”

소장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지금 세계 100여 개 나라에 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법륜》이 수십 개 연

어로 번역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다주었고, 정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아주 먼 현의 시장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제가 그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무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상을 말해 5명을 탈퇴시켰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시장의 절반쯤 갔을 때 진상 자료를 다 나눠줬습니다. 한 할머니 수련생도 그곳에 왔길래 제가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자료를 좀 더 줬고, 제가 막 가방에 넣는데 경찰이 와서 저희 둘을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무 파는 사람들 곁을 지나갈 때, 그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기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 배정됐습니다. 제가 막 앉자 한 사람이 들어와 제 피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를 막으며 “누구 피를 뽑겠다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 뽑으면 말고요”라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또 컴퓨터로 가서 제 조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향해 말했습니다. “컴퓨터야, 너도 하나의 생명이란다. 네가 만약 그가 글자를 치게 한다면 너에게는 미래가 없을 거야.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는데 너는 이용당하지 마라. 너는 장래에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거야.” 저는 끊임없이 정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젊은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글자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만져봐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젊은이, 컴퓨터가 고장 났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장 안 났어요. 멀쩡한데 왜 안 쳐질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치지 마세요. 하늘이 보니 당신이 괜찮은 사람 같

자료점 수련생들은 자료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에는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 수련생이 외지에서 한 기술 수련생을 데려와 우리 지역의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지역과 연락하며 지냈는데, 나중에 그 수련생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료점 수련생들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자료점 수련생이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련생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급히 문 안쪽 열쇠 구멍에 꽂고 손으로 째 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한참이나 문을 두드리다가,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듯했습니다. 그때 수련생은 누군가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한참을 꽂아도 들어가지 않더니 잠시 뒤 밖에서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방에 있던 수련생은 바깥에 확실히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른 수련생의 차를 구해 그날 밤으로 자료점의 물품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대법 자원과 수련생 모두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수련생들도 자료점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온 마음을 다해 이 자료점을 지켰습니다. 어떤 여성 수련생은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됐는데, 경찰이 자료 출처를 말하라고 하며 아무리 때려도 그 수련생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으로 자료점과 대법을 지켰습니다. 이후 그 수련생은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고, 노동수용소에 가서도 ‘전향’하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수련생들은 안전을 위해 대부분 혼자 오가며 출입 횟수를 줄였습니다. 아침에 가서 밤에 돌아오고, 혼자서 하루 종일 작업하며 배고프면 준비해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련생들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외로움을 견디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자료점을 지키며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수련생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즉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하여 형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거리와 골목마다 수련생들이 법을 실증한 발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연공을 마치고 밥을 먹은 뒤, 법을 한 강 공부하고 자료점으로 갔습니다. 자료점에는 한 수련생이 집에서 가져온 전기밥솥이 하나 있었고, 배가 고프면 그걸로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국수를 삶을 때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끓였습니다. 그래야 지켜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국수가 다 삶아지기 전에 전원을 빼고 전기밥솥의 잔열로 계속 익혔습니다. 10여 분 뒤에 면과 국물을 함께 그릇에 붓고 소금만 조금 넣어 휘저으면 한 끼 식사가 됐습니다. 간단하고도 실속 있었습니다.

한번은 국수가 다 떨어져 다음 날 가는 길에 사려고 했습니다. 반쯤 갔을 때 돈을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났지만, 다시 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 그냥 곧장 자료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밤에 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도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서, 악당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넘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이 없자 저희 가족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데리러 왔을 때 파출소장이 “다시는 당신 어머니 나오시게 하지 마시오.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머니는 어른이시고 저는 아랫사람이라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20여 년간 약도 안 드셨고요. 제 말을 안 들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저는 명혜망에 장쩌민 고소 관련 보도가 실린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도 장쩌민을 고소하고 싶었지만 쓸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수련생에게 물어봤는데, 그녀는 “그건 아주 강한 정념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어요”라고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요 며칠 진상 알리러 나가지 말고 집에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장 썼다가 취소하고, 또 한 장 썼다가 취소하고, 도무지 쓸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고 사람을 구하러 나가지 않는 것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밤 12시 정념을 발하고 나서, 저는 사부님 법상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부님, 저 ‘장쩌민 마귀’를 고소하고 싶은데 쓸 줄을 모릅니다. 사부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다시 새벽 2시까지 썼고 마침내 다 썼습니다. 다음 날 수련생에게 출력해 달라고 해서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발송했습니다. 이틀 뒤 양고에서 제게 접수증을 보내왔고 저도 잘 받았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이래 저는 목숨이 위태로운 교통사고를 몇 번 당

했습니다. 2008년 3월, 저는 차에 뒤에서 부딪혀 4~5미터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운전기사는 겁에 질려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운전을 막 배워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병원으로 모실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선인’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돼 남을 속이거나 뜯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는 중공의 공산주의 청년단과 소년선봉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라고 했습니다. 길가에서 한 여자가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는 “그냥 그렇게 보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진상을 알렸고 그녀도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했습니다.

2020년 3월,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전염병으로 지역과 도시가 봉쇄되기 시작해 시내버스가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전동 삼륜차를 타고 시장에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번은 돌아오는 길 중간쯤에 길에 사람도 없었는데, 어쩌다 넘어졌는지 차 밑에 깔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오던 사람이 제 차를 들어 올리고 저를 차 옆으로 부축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꽤 심하게 넘어져 옷이 찢어지고 다리와 팔도 다쳤지만 가족들에게 차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뒤 저는 또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동북 작은 도시의 자료점이 걸어온 길

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69세이며 동북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1997년부터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우리 지역에 막 만들어진 자료점이 파괴돼 세 명의 수련생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도 수련생들은 두려움이나 물러섬이 없었고, 우리 몇몇 수련생은 다시 새로운 자료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련생이 자기 돈으로 자료점이 쓸 작은 건물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때 새로 빌린 그 건물에는 낡은 복사기 한 대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집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를 자료점에 보내주었고, 저는 목걸이, 팔찌, 반지를 팔아 수련생에게 소모품을 구입하게 해, 자료점이 간단하게나마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들이 이 사정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해 자료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료점으로 전해온 돈은 대부분 잔돈이었습니다. 농촌 수련생들은 계란이나 농산물을 팔아 만든 돈이었고, 어떤 노년 수련생은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내놓았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먹고 쓰는 것을 아끼며 자료점 운영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그때 월급은 500위안 남짓이었고, 남편은 실직한 상태였으며,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달 100위안을 자료점에 냈습니다. 우리는 회계도 없고 출납도 없었고, 제3의 증인도 없었습니다. 수련생들은 그저 금과 같은 마음으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기 위해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련인이라 ‘어렵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구하려는 선한 마음이 도달하면, 어려움이라 해도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처음 기술 수리 분야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섰을 때를 돌이켜 보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중생이 진상을 보고, 진상을 이해해 중공 악당이 주입한 거짓말의 독을 없애고 구원되어, 끝없이 일어나는 각종 재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나가며 좋은 미래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사무아, 선타후아(無私無我, 先他後我)’의 정각(正覺)을 이루길 바라십니다. 마음을 다하면 사부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막다른 길에서 다시 밝고 넓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수련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존께서 자비롭게 배치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집착과 사람 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 제거됐고, 나쁜 급한 성미도 고쳐져 차분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성취해주셨기에 저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사부님께서 열어 주셨고, 능력은 대법이 신통으로 부여해 주셨으며, 기술은 수련생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예전처럼 변함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하늘이 중공 악당을 징벌하는 재난 속에서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대법제자의 공통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시간을 아껴 법공부하고 기회를 잡아 사람을 구하다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의 노년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80세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사부님의 보살피심 아래 저는 확고하게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래 저는 최근 2년간 제 수련 체험 일부를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을 아껴 법공부 잘하기

저는 혼자 생활한 지 벌써 16년이 됐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많은 편리함이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전심으로 집중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을 아껴 매일 일을 가득 안배하는데 긴장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여려해 동안 속인 TV를 보지 않고 속인 TV 내용에 털끝만큼의 흥미도 없으며, 더욱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까 봐 두렵습니다. 노인용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전화 받고 거는 것 외에 단지 일기예보만 봅니다. 매주 한 번 명혜망에 접속해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보고 명혜 라디오를 다운로드하며 정법 노정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바닥을 닦을 때 저는 대법 음악 ‘보도(普度)’와 ‘제세(濟世)’를 듣습니다.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 때 명혜 라디오를 듣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선원예술단 콘서트(演唱會)’를 시청합니다.

저는 식사를 비교적 간단하게 하는데 자주 한 번에 만두 두 솥을 찌서 냉장고에 얼려놓습니다. 옥수수 죽을 끓일 때는 한 번에 최소 세 그릇, 많을 때는 다섯 그릇을 끓여 작은 대야에 담아 냉장고에 냉장해 이틀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밥하는 것은 만두와 죽을 데우는 것인데 10분이면 됩니다. 3~4일에 한 번씩 점심에 수제비국을 끓이는데 한 번에 두 그릇을 끓여 한 그릇을 먹고 한 그릇은 다음 날 점심에 먹습니다. 때로 채소도 볶는데 한 번 볶으면 역시 여러 끼를 먹습니다. 자주 먹는 것은 계란인데 만들기 쉽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런 생활이 이미 습관이 됐는데 목적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남겨 법공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매번 설법에서 모두 법공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달픈 환경,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모두 법 공부를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들이 제고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보증이기 때문이다.”(각지 설법2-미국플로리다법회 설법)

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파룬따파를 수련한 28년간 법 공부를 절대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긴장되고 질서 있게 수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매일 ‘전법륜(轉法輪)’ 한 강을 공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법을 외을 때는 제외). ‘전법륜’ 한 번을 다 공부하면 사부님의 다른 설법 한두 권을 공부합니다. 사부님의 새 경문이 발표된 후 저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암송합니다. 매일 법 공부 시간은 대략 2~3시간입니다. 새벽 연공을 마친 후 아침 6시 정념을 발한 뒤 저는 30분 정도 법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일반적으로 2시간을 공부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

아니라 사부님께서 나를 수련해 신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고향에서 벗어나 더는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우리가 원래 왔던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항상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기

중공 악당은 진상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 봉쇄를 더욱 강화했고, 그로 인해 수련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포럼에서 안드로이드 가상머신으로 무난하게 인터넷을 우회하는 방법을 보고,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포럼 수련생이 올려둔 방법을 하나하나 필기하며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직접 실습해 성공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에도 거의 보급되어 수련생들이 원활하게 인터넷을 우회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진상 지폐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하려고 저는 협조인 수련생과 상의해 감광기(인장 제작기)를 구입했습니다. 포럼에서 강좌를 내려받아 감광 인장을 제작해 수련생마다 한 세트씩 갖추게 됐으며, 말 그대로 ‘곳곳에서 꽃이 피듯’ 널리 퍼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어렵고 어렵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속인으로서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수련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고 불가사의하며,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전법륜)

원을 켜는데 빨간불만 깜박이고 소리가 없으면, 인코더 스트립이나 인코더 디스크가 오염된 경우다. 물티슈로 닦아준다. 4. 프린터 헤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종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픽업 롤러 고무가 닳아 교체해야 하거나 전기 테이프를 큰 롤러는 세 바퀴, 작은 롤러는 두 바퀴 정도 감아 두께를 보완할 수 있다. 5. 프린터 헤드는 움직이는데 종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클러치 스프링이 부러졌거나 고정 스프링의 플라스틱 기둥이 파손된 것일 수 있다. 6. 출력 색이 쏠리거나 한 가지 색만 나올 때는 드라이버 설치 문제일 수 있어 재설치한다. 7. 헤드와 종이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백지만 나오면, 테스트기로 메인보드의 F2 퓨즈가 끊어졌는지 또는 트랜지스터가 손상됐는지 확인한다. 8. 전원을 켰을 때 초록불만 잠깐 켜지고 반응이 없으며 ‘지지직’ 소리가 들리면, 내부 부품 하나가 타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메인보드 단자에서 분리해 하나씩 점검하며 어느 부품이 고장 났는지 확인한다. 9. 프린터가 무겁게 움직이며 손으로 당길 때도 둔한 느낌이 들면, 레일에 윤활유를 조금 바르고 왕복으로 움직여 본다. 그래도 안 되면 모터 베어링이 파손됐을 수 있다.

그리고 L805 모델은 장시간 출력 시 자동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잠시 멈추는데, 그 후 첫 페이지는 백지로 나오고 그다음부터 정상 출력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순서가 어긋날 수 있어 한 페이지씩 출력한 뒤 수작업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간단히 요약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천지행(天地行) 포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내가 제가 기계를 고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급한 성격이 이런 정밀한 기계를 고칠 줄도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내가 신기한 게

는 일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줄곧 법 암기를 견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법을 박해하던 초기 저는 어쩔 수 없이 유랑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전법륜’을 외우기 시작해 1년 시간을 들여 한 번을 다 외웠습니다. 탄탄하게 외워 기억이 깊었고 수확도 컸으며 훗날 법을 실증하고 수련하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환경이 바뀌고 형세가 엄혹해 2017년에 이르러서야 두 번째로 ‘전법륜’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매년 ‘전법륜’을 한 번씩 외웠고 올해 아홉 번째를 다 외웠습니다. 저는 매년 동지부터 법 암기를 시작해 봄이 오기까지 외우는데 4~5개월 시간을 들여 한 번을 다 외웁니다. 법을 외우는 중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한 층의 법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제가 조금의 내포를 이해할 때면, 마음속에 늘 한 차례 한 차례 감동이 솟아오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웠습니다. “한 수련인으로서 금후의 인생행로는 개변될 것이며, 나의 법신이 당신에게 새롭게 안배해 줄 것이다. 어떻게 안배하는가? 어떤 사람들의 생명 노정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 자신도 모르며, 어떤 사람들은 1년이나 반년이 지나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리면 몇 년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뇌혈전 또는 기타 병에 걸려 전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금후의 인생행로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우리는 당신에게 모두 청리(清理)해 주어야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전법륜)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깊이 느꼈으며 제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

할 수 없어 단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게 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부님 말씀을 듣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며 저는 끝까지 수련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2. 기회를 잡아 많은 사람 구하기

여러 해 동안 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줄곧 대면으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이성적으로 하면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회를 잡아 진상을 알린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1) 구원받은 후 생명의 기쁨

어느 해 11월 어느 날 바람이 5~6급의 서북풍이 불어 아주 추웠는데 마침 그날 제가 오후 1시 반에 어느 곳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밖에 나가 차량 상황과 날씨를 보며 대문 앞을 두 번 왕래했는데 택시 한 대가 왔고 저는 다가가 기사와 시간을 약속하며 기사더러 오후 1시에 대문 앞에 와서 저를 태우라고 했습니다. 만약 10분을 넘겨도 오지 않으면 각자 갈 길을 가서 그가 손님 태우는 것을 지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이 무엇이나고 물었고 기사는 즐겁게 “저는 ‘싱푸(幸福, 행복)’가 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 얼마 전 탔던 택시 기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는 시원하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으며 제가 그에게 지어준 가명이 ‘싱푸’였는데 그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날 하차할 때 저는 “다시 만나면 당신을 ‘싱푸’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만났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저를 기억하

생각이 들면 생기는 원망과 질투심까지. 이 모든 것은 오랜 생활 속에서 길러진 좋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는 제가 이러한 집착을 빨리 버리고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 역할을 맡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를 위해 온갖 마음을 다 써 주십니다. 저는 오직 더욱 정진하는 것으로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생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 지원을 잘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술 지식을 쌓기 위해 저는 기술 포럼에 들어가 자료를 찾고, 같은 기종의 고장 수리 요점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프린트해서 책처럼 만들어 기계를 열어 하나 하나 대조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포럼에 글을 올려 수련생들에게 물었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질문했습니다. 2년 동안 기술을 깊이 배워 오는 과정에서 포럼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도움과, 백 번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인내심 있는 답변에 정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기술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던 제가 아마추어 기술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포럼 수련생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종(L800, L805)을 기준으로,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고장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출력 시 줄무늬나 가로줄이 나타나면 내부 잉크통에 공기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주사기로 공기를 제거한다. 세로 줄무늬는 노즐 막힘일 수 있어 청소가 필요하다. 2. 출력 시 빨간불이 깜박이고 ‘종이 있음’ 표시가 뜨는데 실제로 없으면, 프린터 헤드 좌측 앞의 감지 센서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물티슈로 닦는다. 3. 전

제가 걱정했던 풍파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도움에 감사드렸습니다. 사부님을 걱정하게 해드렸구나 싶어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며, 정법의 관점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악한 구세력은 감히 방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곧 대법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신(正神)과 호법신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실 의심 또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우면 온갖 생각이 생겨나고, 가상과 추측이 많아지고, 의심도 점점 커집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급함 버리기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은 매우 정성스럽고 세심하며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반감이 일고 그런 사람을 얕보았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밭을 모두 낮으로 손수 베었는데, 허리를 굽혀 해야 하니 꽤 힘든 작업입니다. 그때 저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베기 선수’였습니다. 평소 목소리도 커서 항상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많은 나쁜 습관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빨리 하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공명심, 남이 칭찬하면 우쭐해하는 환희심, 느린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빠르고 느린 것으로 승부하려는 쟁투심, 큰 목소리로 남을 놀려보려는 과시심,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구원받은 생명이 대법에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주택단지에 들어간 후 한 경비원이 큰 바람 속에 서 있고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두어 마디 잡담을 나눴고 그가 청난(城南) 어느 마을 사람이며 성이 리(李)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말한 후 기회를 잡아 진상을 알렸고 천재지변부터 말하기 시작해 전염병이 맹위를 떨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졌으며, 그에게 “삼퇴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명심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상을 매우 믿었고 소선대(少先隊)에 가입했다고 말하며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리바오안(李保安)’이라고 했고 그가 평안하게 재난난을 피하길 축복했습니다. 그가 “누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려면 대법 사부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부님께서 우리더러 사람을 구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거푸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상 가방과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주었고 그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2) 택시 안에서 진상 알리기

어느 날 저는 밖에 나가 일을 좀 봐야 해서 처음에는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방금 한 대가 지나갔고 다음 차는 20분 후에나 올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시간에 못 가겠군.’

이때 서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왔는데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제

가 앞으로 걸어가니 차가 멈췄고 물어보니 사람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 가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6위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이전에 정식 택시를 탈 때는 15위안이나 10위안이었습니다. 차에 탄 후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가 집에서 할 일이 없고 한가한 것도 재미없어 나와서 돌아다니며 몇 위안이라도 벌면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제가 10위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사람이 꽤 성실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상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이 꽤 많은데 3년간 코로나로 4억 명이 죽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징벌입니다.” 그가 “맞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공은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으며 무신론을 말하니 사람들을 모두 고생시켰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공경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은 하늘을 하느님(老天爺)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모두 황상(皇上)을 천자(天子)라고 칭했습니다. 중공은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또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말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재앙을 피하며 삼퇴해 평안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붉은 스카프를 했거나 공청단에 가입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했습니다. 저는 단원이요 또 당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

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사악에게 납치됐을 때 아내도 함께 연루됐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제 행방을 알아내려고 천리가 용납하지 않을 악명 높은 ‘호랑이 의자(老虎凳)’ 고문을 사용해 아내를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출옥하여 집에 돌아온 뒤 어느 날, 방에서 진상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돌아가는 프린터를 본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기계를 한꺼번에 보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겠다고 했으니 물러설 수는 없어.” 아내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선 장비를 가까운 친구 집에 보관하고, 고철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기술을 모르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숨이 짝 막히는 듯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정념을 받았습니다. 강한 정념으로 모든 사악의 방해와 교란을 제거하고, 사부님께서 배치해 주신 기술 수련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머금은 채 사부님께 저를 가지(加持)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법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법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다음 날, 기계를 집중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내가 제 앞에 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서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안전만 조심해요. 너무 눈에 띄지 말고…… 그 안에서 겪었던 날들, 아직도 지긋지긋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꼭 조심할게요.”

말았던 기술 수련생은 외지로 이사해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해졌습니다. 기술은 전혀 모르는 데다 ‘수리’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진상 자료가 늦어지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 지장이 생긴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하지만 한다고 해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부님께서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行能行)”(전법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대법제자다. 대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기술을 모르지만, 대법은 모든 것을 관통한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번쩍하는 듯했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했습니다. 사존의 가지(加持)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상과 의심 버리기

협조인 수련생을 따라 다른 곳으로 프린터 장비를 옮기러 갔을 때, 제 눈앞에는 열댓 대가 넘는 프린터가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두 대라면 배우면서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기계를 한 번에 어떻게……?’ 멍하니 서서 바라보며 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어쩌지? 이걸 모두 집에 가져가면 아내가 보고 또 죽기 살기로 난리가 나는 것 아닌가?’

예전에 있었던 몇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진상 자료

재난 중에 평안하고 목숨을 지키려면 탈퇴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중공이 불러온 것인데 중공은 역대 운동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반(鎮反)과 삼반(三反), 그리고 오반(五反)과 반우파(反右) 운동과 문화혁명, 그리고 6·4 대학생 진압(천안문 사태)를 통해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1999년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며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중공이 불법을 박해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데 하늘이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우리는 재앙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중공의 당·단·대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하늘에 탈퇴하고 신에게 탈퇴하는 것인데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해도 되고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보십니다.” 그는 삼퇴에 동의했고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장더푸(張德福)’라고 했는데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건넨 진상 자료와 호신부를 그는 모두 받았고 저는 그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축복했습니다.

3) 가스회사 소장에게 진상 알리기

어느 날 점심에 저는 만두를 찼는데 찌서 솥에 올려놓을 때 가스레인지를 왼쪽 버너가 점화가 순조롭지 않았고 누르면 불이 붙었지만 손을 떼면 꺼졌습니다. 저는 오른쪽 버너를 사용했는데 이때 갑자기 마음속으로 ‘가스회사 B 소장에게 물어보면 주택단지에 가스레인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저에게 신식 가스레인을 소개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지금 집에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가 지금 한 번 와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주택단지에 이사 온 후부터 B가 줄곧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매우 관심 있게 돌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전염병 기간 B는 특별히

차를 몰고 20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저에게 가스를 사다준 적이 있었고 저는 그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평소 난방에 문제가 좀 생기면 그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즉시 찾아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꽤 좋다고 느꼈고 몇 차례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지만 모두 시간이 촉박해 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

잠시 후 B가 도착해 레인을 살펴본 후 또 휴대폰에서 이 모델의 상황을 찾아봤는데 점화가 안 되는 원인은 통풍구가 커서 쉽게 불이 붙고 쉽게 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아주 빨리 가스레인을 수리해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 후 “소장님 저는 진작부터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소장님은 늘 매우 바빠 보였습니다. 오늘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진상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천재지변과 전염병, 그리고 인재(人災)가 빈발하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변화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르면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 평안을 지키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찰싼런하오’를 염하세요.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고 불법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진심으로 불법이 좋다고 믿으면 신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전염병이 감히 찾아오지 못하며 소장님은 어려움을 만나도 상서로움을 나타내고 위험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또 일찍이 가입했던 중공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늘에 탈퇴하고 별명이나 가명

맺음말

수련 중에 쓸 일이 매우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글을 마치지만 저의 깨달음은 매우 깊습니다. 대법제자의 수련 과정은 바로 ‘진선인(眞·善·忍)’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을 위함’을 수련해내는 것은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도달해야 할 경지이고, 또한 장래 신우주가 원용불파(圓容不破)하는 보장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기술 수련생이 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왔으며 올해 57세입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보호 속에 줄곧 수련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은 수련 체험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집착을 버린 경험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버리기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인 수련생이 갑자기 이 지역의 기기 수리를 제가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을 수립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아주 오래 교류했고, 그녀도 많은 집착심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망심이 있습니까?” 그녀는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없는데요?” 저는 그녀의 감정이 많이 안정된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 다시 가서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이웃집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어요. 왜 수련생이 나에게 원망심이 있냐고 물었을까? 자세히 회상해보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10여 년 전에 경찰이 우리집에 와서 저를 납치하려 했을 때 남편은 온돌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제 원망심이 갑자기 나왔어요. 특히 나중에 다른 수련생이 납치됐을 때 다른 수련생의 가족이 용감하게 나서서 박해를 저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더욱 남편을 원망했어요. 10여 년이나 됐고 마음속 깊이 묻혀 있어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찾았고 그것을 제거했어요. 신기한 것은 차갑던 그가 이제 제게 잘 대해줘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도와 박해의 뿌리를 찾아주셨고 저는 지금 이미 관찮아졌어요.”

저는 정말 그녀를 위해 기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예전의 당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까?” 이 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수련생에 대한 한 차례 선한 행동이 정말로 상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을 사용해도 되며 아무것도 영향 받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당원입니까?” 그가 “저는 아닙니다. 공산당은 극도로 나쁘니 왕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을 촌위원회에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하나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탐오 부패하며 작은 관리는 크게 탐오하고, 큰 관리는 크게 탐오하는구나.’ 제가 말하는 것이 직설적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저를 어찌하지 못하고 모두 저를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주견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공은 역대 운동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특히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온갖 고문을 다 사용하고 심지어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합니다. 중공은 천리를 어기고 사람을 해치니 하늘이 그것을 없애려 하는데 전염병과 재난은 모두 그들이 불법을 박해해 불러온 것입니다. 중공에서 멀어져야 재난에서 멀어질 수 있고 당·단·대에서 탈퇴하면 평안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가 “장모(江某, 장쩌민)가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연공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박해 초기 이미 1억 명이 연공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져 100여 개 국가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4억 3천만 명(당시의 숫자)이 중공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소장님도 탈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늘에 탈퇴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며 탈퇴하면 하늘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원하게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자싱(家興)’이라고 했고 그는 중공의 단·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그에게 진상 자료와 대법 진상 호신부를 건네자 그는 모두 받았습니다.

4) 버스 정류장에서 진상 알리기

어느 날 일기예보에 중간 정도 비가 소나기로 바뀐다고 했는데 저는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연공을 마친 후 날씨를 보니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떤 날씨든 상관하지 않고 정한 일은 비바람을 무릅쓰고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 옷과 장비를 모두 큰 비가 오는 날씨에 대비해 준비했고, 또 정념을 받으며 풍신(風神)과 우신(雨神)에게 ‘오전에는 바람을 불게 하지 말고 큰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소통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른 차를 타면 일반적으로 7시 50분에 정류장에 도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차를 타는 사람이 적어 버스가 일찍 올 것을 생각해 미리 가야 했습니다. 7시 40분에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생각한 대로였고 7시 50분에 차가 왔습니다. 차에 승객 몇 명이 있었고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차 후 저는 제 일을 마쳤고 9시 20분에 정류장에 도착해 돌아오는 차를 기다렸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왔는데 보기에 퇴직한 나이였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올 때 차에서 말을 많이 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디 가지요? 몇 번 버스를 타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또 같은 노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대군인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몇 살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으며 “80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으시다니! 70세 갓 넘은 사람 같으신데요.”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10~20분)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즉시 그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만난 것이 바로 인연인데 중요한 일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이 끊임없고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

사이에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협조인에게 피드백해 협조인의 의견을 봤습니다. 협조인은 교류를 거쳐 더는 모든 것을 도맡지 않고 수련생 스스로 해결하게 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걷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조인의 ‘일부러 나서지 않음’은 제가 매우 강한 의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협조인과 상의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다른 협조인이 나서기를 원했으며, 자신은 해결할 자신이 없었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 위험이 있는 일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식한 후 다시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번은 악인들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 외지 수련생을 납치하려 했는데, 수련생이 집에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자 수련생 집 부근에서 잠복했습니다. 수련생들이 도와서 정념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지나니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누구도 이 수련생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한 협조인으로서 저는 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려 열자 그녀의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천목(天目)이 반쯤 열려 수련하는데, 아마 무엇을 봤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다른 수련생 집에 며칠 있었는데 그 수련생이 두려워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일해서 돈을 벌라고 재촉했는데, 그녀는 버티며 하지 않고 집에서 법공부하고 정념을 받으며 상태를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괴로운데 오는 수련생이 없었고 모두 저를 피하는데 당신만 오셨네요!”라고 말하면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때 그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수련생과 교류해 정념

기에 마음이 평온해진 후 일의 원인을 정리해보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녀를 위한 것이었고 그녀를 상처주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의 당시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타인을 위하는 생명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모든 집착을 포기하고 자비롭게 일체를 대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협조 사업을 하면서 ‘타인을 위함’을 수련하다

어느 날 한 협조인이 저를 한 법공부 팀으로 데려갔는데 제가 보니 모두 협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함께 법공부하고 함께 교류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체에 합류했을 때, 저는 이 환경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교류하는 화제가 대부분 모두 정체에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원용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것이었고, 기점이 모두 정체를 위해 생각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정체라고 생각한 것은 단지 진상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수련생들이었고, 게다가 진상 휴대폰과 컴퓨터의 유지보수만 고려했고 기타 일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협조인들이 고려하는 것은 현지 전체 수련생에게 나타난 문제였고, 이것은 제 내심의 용량을 점차 확대시켰으며, 저는 정체 각도에서 문제를 사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지의 승화와 기쁨을 느꼈고 그 시간은 정말 기뻐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접촉하는 수련생이 많아서 아는 일도 많아졌고, 저는 수련생들

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런 재난은 모두 중공이 불러온 것인데 이 당은 운동을 벌여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삼반과 오반, 그리고 반우파 운동과 문화혁명, 6·4 그리고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습니다. 파룬궁은 불법 수련으로 사람에게 선을 향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불법을 박해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염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중공의 당·단·대에서 탈퇴하면 재난에서 멀어져 목숨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늘에 탈퇴하는 것인데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해도 되고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보시니 마음이 진실하면 영험합니다.” 그가 “저는 성이 가오(高)이고 단대에 가입했으며 탈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가오광밍(高光明)’이라고 했고 그의 앞날이 광명하길 축복했는데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때 차가 왔고 차에 탄 후 저는 서둘러 진상자료와 호신부를 찾아내 몰래 그에게 주었고 그는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인연 있는 사람을 제자 앞으로 보내주시며 그들에게 진상을 듣고 진상을 이해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제거해야 할 많은 집착과 사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법의 마지막에 저는 계속 시간을 아껴 법공부를 잘 하고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며, 많은 사람을 구하고 마지막 걸음을 잘 걸으며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매일 진상을 알리며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구술, 수련자 정리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은 수련자이고 아들과 며느리, 두 손녀 모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고 저희 수련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온 가족은 대법의 법광(法光) 속에서 목욕재계했고 집안 살림이 특별히 순조로웠는데, 저희는 이것이 모두 사부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1. 법을 얻다

법을 얻기 전 저는 혈압이 높고 두통이 있어 늘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어른거리고 지나가는 것이 자꾸 보였습니다. 저는 “왜 자꾸 시어머니가 보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남편도 늘 머리가 아팠는데 그는 부체(附體, 사람 몸에 붙는 동물, 귀신 등의 영체)가 있어 무언가를 모시고 있었고 초하루와 보름이면 향을 피웠습니다.

1997년 7월 어느 날, 남편은 직장에서 파룬궁이라는 공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남편은 근처 연공장으로 갔습니다. 모두 함께 책을 읽는데 저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책을 못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부님의 설법 녹음테이프 한 세트를 구해오더니 “당신 먼저 들어요”라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

물론 저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몇 명의 수련생이 시스템 설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시 기술 수련생이 연구개발한 시스템 설치 도구 상자 v1.2를 사용했는데, 비밀번호 설정까지 설치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 세트의 비밀번호를 편집하세요. 20자리 이상이어야 하고 대소문자, 숫자, 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 도구 상자가 인식하지 못해 다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 수련생이 제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된 거였군요! 우리가 모두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아무개 수련생이 농촌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된 후 ‘3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쓴 비밀번호의 문자 내용을 봤을 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길 ‘내가 ‘3서’를 썼다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를 비꼬는 거야! 비밀번호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해서 한 번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접촉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그 세트의 비밀번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잊어버렸는데, 수련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입혔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그래도 평온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비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무조건 당신을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당신이 스스로 하나 설정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설정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 설정했더니 당신은 내가 비꼰다고 하고 뒤에서 나를 나쁘게 말하다니.’ 분노, 억울함, 불평, 원망이 모두 왔습니다! 다행히 안으로 찾기가 제 머릿속에서 이미 습관이 됐

SSD를 교체해 컴퓨터의 정상적이고 빠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이전 기술 수련생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항상 사부님 《홍음》의 시구 각 글자 병음의 첫 자모를 선택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지금 어떤 수련생은 사부님의 설법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말 것을 건의해 법을 경시하는 것을 피합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지만 저도 보통 사람의 문구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모두 비밀번호가 대표하는 문자 내용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묵념하는데, 만약 속인의 내용이면 매번 모두 속인 문구 내용에 오염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수련 중에 체득한 것으로 한 단락을 쓰고, 다시 각 글자의 병음 첫 자모를 뽑아내고, 숫자와 기호를 더해 비밀번호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 법을 경시하는 요소도 없고, 속인 문구의 오염도 없으며, 또 수련 중 사람을 고무하는 말, 수련생에게 정진을 일깨우는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저에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개 수련생이 막 흑굴에서 돌아왔는데, 강제로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썼고 기분이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녀에게 설정해준 비밀번호의 문자 내용을 읽었을 때(그것은 제가 진심으로 그녀를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나를 격려하는 것이니 나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 정말 기뻐합니다. 수련생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정진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는 녹음기 사용법을 잘 몰라 테이프를 뒷면으로 돌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강의를 끝나자 저도 잤습니다. 그날 저는 편안하게 잤고 이 공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대법서적을 구해왔고 제가 책을 펼쳐 사부님 사진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에서 사부님을 뵈었는데 사부님께서 노란 옷을 입고 계셨어요.” 남편은 사부님 설법 제1강을 듣고 나서 자기가 모시던 물건을 버렸고 저희 둘 다 대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는 걸을 때 온몸이 가벼워 깜짝 놀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와, 이 공법은 어쩜 이렇게 좋아요!” 제 기분과 몸 상태는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야학을 2년 다녔지만 그마저도 자주 가지 않아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법공부 팀에 가서 법공부 할 때 들으면서 책을 봤는데 10여 일 만에 ‘전법륜(轉法輪)’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읽고 남편에게 맞게 읽었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글자를 잘 모르는 제자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대법 책을 통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2. 정법수련에 들어서다

법을 얻고 처음 2년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사악이 파룬파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인데 왜 그러는 거지?’ 박해가 시작된 후 남편은 마침 실직해 집에 있었는데, 협조인 수련자가 우리 시의 첫 번째 복사기를 우리집에 가져다놓고 남편에게 자료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루하루 자료를 만들어 부대 자루에 담아놓으면 밤에

수련자들이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없으며,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심신 건강을 주신 것은 사실이라 누구도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고 정념정행(正念正行)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두 수련해서 환경이 좋았고 집에서 자료를 만드는 외에도 수련자들을 도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 옆 큰 시장에 노점을 차리고 식품을 팔았는데 매일 사람이 오갔기에 기회를 봐서 사람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고, 대법 사부님과 대법은 결백하며 신문이나 방송 선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대형 공장 사택 구역으로, 제가 진상을 알리는 사람 중 많은 이가 그 공장 간부이며 공안처 처장, 공장 서기 및 가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들은 제 노점 앞을 지날 때면 모두 “바쁘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바쁘네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옆 사람에게 ‘파룬궁’이라고 말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파룬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진상만 알렸고 아직 사람들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면 재난이 올 때 도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예요. 절대 파룬궁을 박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직접 겪었는데 연공하고 몸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오, 그래요,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초, A 수련자가 지인에게 진상 자료를 주다가 악의적인

많은 중생을 구하도록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모든 컴퓨터를 다시 설치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관망하는 수련생도 있었는데, 저라는 새로운 기술 수련생이 설치한 시스템의 안전성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지행’의 관련 기술 교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엄격히 했고, 동시에 수련생에게 인터넷 안전 주의사항과 시스템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천천히 사용하는 수련생이 증가하면서 모두 보편적으로 제가 설치한 시스템의 안전성이 좋고 설치가 꼼꼼하다고 인정했고, 수련생들이 저를 인정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게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끼게 했고, 매일 진지하게 ‘천지행’을 찾아보며, 시스템 안전 방안을 완벽하게 하는 기술이 있으면 제때에 수련생의 컴퓨터에 보충 설치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신의 득실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마치 제 존재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윈도우8.1 시스템이 사용 기한이 돼 컴퓨터 시스템을 모두 윈도우10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문제와 관련됩니다. 윈도우10을 설치하는 컴퓨터는 사양 요구가 높습니다. 메모리 4G, SSD를 사용해 시스템을 설치해야 빠르고 원활하게 운행됩니다. 어떤 컴퓨터는 메모리를 추가해야 하고, 어떤 것은 SSD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인지가 제로였습니다. 저는 시도해서 분해하고, 분해한 서로 다른 부품과 나사를 다른 곳에 나눠 놓고 기억해서 다시 설치할 때 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하에 저는 놀랍게도 한 번에 성공했고, 이것은 제 자신감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이후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저는 먼저 뒷덮개를 분해하고, CPU의 방열판과 팬을 모두 분해해 먼지를 청소하고, 써멀 구리스를 바꾸고, 다시 메모리를 추가하고

에 접속하고, 제때에 삼퇴한 세인의 명단을 해외 탈당 사이트에 발송하기 위해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 기술에 종사하는 수련의 길을 열었습니다.

현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련생이 매우 많아서 저는 매일 수련생 집을 분주히 다녔습니다. 이전 기술 수련생의 교훈을 감안해 저는 자신에게 엄격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법공부, 연공, 네 개 정시 전 세계 발정념 시간을 점유할 수 없고, 잠을 자지 않더라도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을 도맡지 않고, 되도록 수련생이 스스로 컴퓨터 유지보수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시스템 설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수련생에게 컴퓨터를 사주지 않고, 그에게 ‘천지행’ 포럼에서 추천하는 브랜드와 모델을 참고로 제공해 수련생이 스스로 사게 한다. 이렇게 분산 구매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수련생이 의존심을 생기지 않게 하며, 동시에 내가 법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지행’의 자원은 대법의 자원이고, 명혜망이 박해받는 중국 대륙 수련생들에게 제공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천지행’에서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기술 수련생은 연구개발한 관련 기술과 경험을 실천에서 이론으로 귀결시키고, 저는 다시 이론을 실천으로 전환해 현지 수련생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어려움과 연마가 있지만 이것은 수련입니다. 이것을 자본으로 삼아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잘난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겸손하게 무조건 도움을 구하러 온 모든 수련생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으로 수련생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며, 타인을 위하는 자비를 수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점을 바로잡으면 갑작스러운 칭찬과 비난을 마주해도 담담하게 대할 수 있고, 사부님께서 저에게 안배한 수련의 길에서 용맹정진하며, 수련생이 더

신고를 당해 납치돼 불법 구류를 당했습니다. 저는 A 수련자 직장 상사를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은 전부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좋은 사람 같소. 당신 말도 맞소. 직장 수도관에서 물이 팔팔 새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A가 지나가다가 잠갔소.” 그 상사의 아내를 보고 저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양반이 박해에 가담하지 않게 하세요. 그녀(A 수련자)를 나오게 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해서 뭐 합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남편에게 말해볼게요.”

2004년부터 저와 남편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나가 진상을 알렸는데 큰 도로를 따라 도심까지 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며 사람을 만나면 말을 걸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대형 백화점 입구에 세워두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걸 감히 배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제대했는데 주민센터 사람들이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며 아들에게 일자리를 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는 건데 뭐가 틀렸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을 원합니다. 무슨 ‘보증서’ 같은 건 안 씁니다.” 저는 주민센터 주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 안 좋았던 거 알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으면 그냥 수련하세요. 자꾸 말하지 말고요. 당신이 자꾸 말하니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반영(신고)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반영해요? 여기 와서 반영하라고 해요. 파룬궁은 정말 좋아요!”

어느 날 저녁, 저와 수련자들이 모두 나가서 전봇대와 나무 위에 진상 현수막을 붙이며 거리를 훑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수련자 한 분이 납치됐는데 경찰이 불법 심문을 하자 수련자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제가 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우리집에 와서 불법 가택수색을 했고 소장이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랑 같이 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가 왜요? 무슨 법을 어겼는데요?” 제가 그들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사부님,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십시오’라는 일념이 나왔습니다. 수련자들이 정기적으로 우리집에 와서 자료를 가져갔는데 자료 한 보따리가 아직 제 노점 수레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에게 “당신은 파룬궁이 나쁘다고 하지만 왜 다 수련하겠습니까? 공산당은 왜 굳이 좋은 사람을 괴롭힙니까? 저는 배운 게 없지만 지금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오자 소장은 “당신들 파룬궁수련자들은 어찌면 그리 힘이 넘칩니까?”라고 했는데 수련하지 못하게 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소장에게 “옆에 다른 기공을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욕도 하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수박 껍질을 아무 데나 버립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수박 껍질을 주워 모아 쓰레기통에 넣고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손을 닦은 뒤 닦은 휴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나서야 연공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도 본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인데 당신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압니다”라고 말했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 노점 옆에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쁠

다. 더 안전하게 명혜망에 접속하기 위해 저는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 설치를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묵묵히 원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수련생들에게 이 방안을 사용해 명혜망에 접속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과 이 방안의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수련생들이 모두 인터넷 보안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모두 이 방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1년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지의 주요 기술 수련생이 심각한 병업이 나타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 방면에서 전문가로서, 컴퓨터든 프린터든 구매, 설치, 사용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능통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로 모두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서 이 수련생은 온종일 일하느라 바빴고, 결국 법공부와 연공을 따라가지 못해 오늘 같은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매우 미안했습니다. 수련생을 위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고, 만약 제가 일찍 컴퓨터 시스템 설치를 배워서 이 기술 수련생의 부담을 덜어줬다면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법공부와 연공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수련생에게 생명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신불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이어 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 수련생이 병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현지의 기술 수련생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프린터가 고장 나면 수리점에 가서 수리할 수 있지만, 대법 일을 하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 해결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점차 모두가 시선을 저에게 집중했고 저도 사부님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바로 저를 안배해 이때 이 책임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수련생들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명혜망

일을 하는 암호화 시스템이고, 하나는 공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중 시스템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시스템이 시스템 디스크 외에 다른 디스크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 일을 할 때는 암호화된 시스템 디스크만 쓸 수 있고, 민감한 내용은 다른 디스크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 조작을 잘못하면 매우 큰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은 비밀번호만 유출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안전 설정을 더하면 명혜망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안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이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방면의 잠재력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기억하지 못하던 것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됐으며, 그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방면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새 에이스 브랜드 컴퓨터를 구입해 지침에 따라 수동으로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한 번에 성공했고, 사용하니 든든하고 안심되었습니다. 저는 현지 수련생들 사이에서 이런 안전하고 믿을 만한 시스템 설치 방안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기술 수련생을 찾아 이 일을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천지행’ 포럼을 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할 줄 모르고 이 방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각지 설법 15-2018년 워싱턴DC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혜망(明慧網)은 대법제자가 교류하는 플랫폼이고, 대외적인 창구이기도 하다.” 수련생들은 명혜망을 떠날 수 없습니

때면 제가 늘 도와줬습니다. 제가 잡혀갔을 때 제 수레에 있던 ‘명혜주간’과 진상 자료가 든 가방을 이 동생이 자기 수레로 옮겨서 한 달 넘게 보관해줬습니다.

그때 수련생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한 수련생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녀의 여동생 집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줄게요. 있을 곳을 찾아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럼 제가 대신 며느님 산후조리를 해드릴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우리집은 너무 드러났고 집에 자료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생을 데리고 타지에 있는 친정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한번은 길게 늘어선 담벼락에 사부님을 모독하는 표어가 네 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수련자 셋은 저녁에 가서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지워버렸습니다. 거리라 늘 사람이 지나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서도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담벼락 칠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장쩌민을 고소했을 때 경찰이 또 우리집에 와서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날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제가 “누군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과출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6~7명이 왔는데 매번 6~7명씩 왔고 사람이 많아야 담이 커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장쩌민을 고소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네, 고소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혈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 병도 없고 걸을 때 몸이 가벼우며, 남편도 예전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 저희 수련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사돈조차 ‘두분을 보면 바르다’는 게 보입니다. 내 딸이 이렇게 멀리 시집왔지만

백 번 마음이 놓입니다. 두 분은 다 자식들을 위하는 분들입니다. 이 공법을 두 분은 통달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의 생명은 모두 사부님께서 연장해주신 것이고 모두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써야 하며, 우리가 하루라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법공부 잘하고 잘 수련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사부님 따라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집에서 잘해야지 집에서 잘 못 하면 식구들이 방해해서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엄마가 어떻게 말하든(진상 알리기) 다 좋아요. 정념정행하시고 주의하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네가 엄마 걱정하는 거 엄마도 이해한다. 안심해라. 나에겐 사부님이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 아래 우리 집안일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갈 때도 신체검사를 한 번에 통과했고 뇌물 같은 건 쓰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1만 위안 넘게 썼습니다. 아들이 제대한 후 일자리 배정이 필요했는데 주민위원회 사람이 이를 빌미로 저에게 수련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찾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제대했는데 일자리 배정을 안 해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교통국으로 배정됐는데 8만 위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8전도 없습니다. 너무 사악하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나중에 한 기업에 배정됐는데 제 아들은 스스로 엔지니어 시험에 합격했고 또 주임으로 승진해서 간부들

는 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되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자아를 내려놓고 정체(整體)를 원용하며 타인을 위하는 경지를 수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나중에 외지 수련생도 진상 전화로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최적화 설정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저는 현지 협조인을 찾아 외지 협조인과 연락하고, 이 방면의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외지 수련생 몇 명을 우리 지역으로 와서 진상 휴대폰 만드는 법을 배우게 했고, 제가 아는 것을 모두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로서, 현지나 외지를 나누지 않고,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적극 협력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바로 서둘러 귀중한 중국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2. 컴퓨터 유지보수를 하면서 ‘타인을 위함’을 수련하다

명혜망의 기술 포럼을 접하면서 이것이 보물창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기술이 다 있고, 게다가 사용이 허가된 것은 모두 기술 수련생들의 인증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됐습니다. 수련생이 배우고 싶은 소원만 있고, 과감히 연구하고 실천하면 안심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찾고 싶으면 그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또 ‘천지행’의 기술 수련생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휴대폰으로 진상을 알리는 항목이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운행되면서 저도 다른 기술 내용을 찾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지행’ 기술 수련생들이 전체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의 기술 수련생들은 아직 이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하드디스크에 두 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법

나중에 현지 협조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수련생들이 휴대폰으로 진상을 알리는 이 항목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 당신이 이 방면의 기술을 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목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수련생들이 모두 참여하게 하면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나오지 못하는 수련생들이 휴대폰으로 진상을 알리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듣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혼자 진상 휴대폰을 사용해 진상을 알리던 것에서 갑자기 현지 전체 수련생의 진상 휴대폰 제작과 기술 유지보수로 확대됐고, 진상 휴대폰의 수량도 백 대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남은 모든 시간을 항목 유지보수에 썼습니다. 끊임없이 새 번호를 바꾸고, 새 진상 음성 파일을 바꾸고, 휴대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등입니다. 비록 작업량이 비교적 많았지만 이 항목이 대부분 수련생을 이끌어 나와서 진상을 알리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저는 원망이 없었고 오직 감사만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 항목이 안전 요구에 따라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켜야 하고 고정되지 않은 이동 경로에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고정된 장소에서 각 구역 책임자가 진상 휴대폰을 가져와 번호를 설치하고, 새 음성 파일을 바꾸고, 휴대폰에 나타난 문제를 간단히 수리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생들 얼굴에 드러난 성공적으로 사람을 구한 기쁨을 보고, 한 장 한 장 삼퇴 명단을 꺼내는 것을 보니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저도 나가서 전화로 사람을 구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버리면 수련생이 와도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두 시간 동안 전화로 사람을 구하면 얼마나 많은 수련생의 휴대폰이 운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저 혼자 사람을 구하는 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련생이 사람을 구하

도 그에게 일을 부탁드립니다.

3. 정념정행으로 사람을 많이 구하다

저와 남편은 매일 오전 나가서 진상을 알리는데 어느 날이든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서 법공부 하라고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구하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탈퇴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일이고, 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일이에요. 인연 있는 사람을 빠뜨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에 진상을 알리면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또래 여성에게 진상을 알리다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을 보고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주 활기차네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녀가 “딸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 중 누가 나이가 많은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면 재난이 올 때 도태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나면요, 3반(三反), 5반(五反), 문화대혁명, 6.4 대학생 학살(천안문 사태)을 보세요. 하늘이 중국공산당(중공)을 멸망시키려 하니 삼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공산당에 가입한 적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은 정말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이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아니면 이런 말 안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진심에 감동해 “가입했어요. 간부예요”라고 했고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

니다. “이 외투 어쩔 이렇게 예뻐요? 나도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입은 게 예쁘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그녀가 “바오딩에서 샀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도 바오딩에서 샀어요. 우리가 인연이 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평안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재난이 올 때 도태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나면요, 3반, 5반, 문화대혁명, 6.4 대학생 학살을 보세요.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려 하니 삼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당에 가입한 적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릴 때 보통 이 몇 마디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녀는 “단원(공청단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탈퇴시켜 줄게요. 늘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외우세요. 틀림없이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참 좋은 분이네요, 마음이 착해요”라고 말했습니다.

2) 노인에게 진상을 알리다

하루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할머니는 “내가 몇 살로 보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70세 되시겠어요. 두 분 참 정정하시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난 여든다섯이야. 영감은 여든일곱이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조카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인데 그 연세에 3반, 5반, 문화대혁명, 6.4 대학생 학살 등 안 겪은 게 없으시잖아요. 하늘이 이 중공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보세요,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천안문 분신’은 가짜고 다 공산당이 조작한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믿네. 공산당은 다 그렇게 사람을 괴

습니다. 그가 저에게 배우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옥에서 이런 사람 구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니 사부님께서 저에게 이런 수련의 길을 안내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로 휴대폰으로 진상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씩 번호를 보냈습니다. 수련생이 저에게 어떻게 진상 휴대폰을 만드는지, 어떻게 컴퓨터로 전화번호와 진상 문자를 입력하는지 등을 가르쳐줬고, 그는 또 익명 전화카드를 사왔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효과는 꽤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 수련생이 외지로 일하러 가서 저는 혼자 이 항목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중고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고, 명혜망의 기술 포럼(천지행)에 가입하는 법을 배워 관련 기술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진상 휴대폰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완벽해지면서 저는 스마트폰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진상 휴대폰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고, 진상 스마트폰으로 진상 문자를 보내고, 자동으로 진상 음성 전화를 걸고, 휴대폰으로 직접 삼퇴를 권하는 진상을 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경험을 종합하고 모색하며 ‘천지행’의 기술 지도를 더해 스마트폰으로 진상을 알리는 항목이 날로 완벽해지고 능숙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수련하는 과정이므로 법공부와 수심(修心), 발정념(發正念) 방면에서 감히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모르고 휴대폰으로 전화만 걸 줄 알던 제가 단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해 진상 휴대폰을 만들고 설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대법이 부여한 지혜입니다.

묵묵히 원용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한 경지로 수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 수련한 지 1년도 안 돼 중공 악당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안문에 가서 현수막을 들고 대법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고, 인간 세상의 정의를 찾기 위해 장쩌민 악마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집착심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사악이 빈틈을 타서 저는 불법 노동수용소, 판결, 세뇌반에 갇혔습니다. 불법 구금 기간 동안 저는 대법이 부여한 정념으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권해 그곳의 중생을 구했으며, 감옥 같은 사악한 환경에서도 자비롭게 40여 명을 탈퇴시켰습니다.

저는 대법을 굳게 믿고 대법을 수호하며, 대법 또한 자비롭게 저를 용련시켜 사리사욕이 가득한 사람에서 점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대법제자로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법에 감사합니다! 아래에 저는 이 방면의 체득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휴대폰 진상 알리기 항목에서 ‘타인을 위함’을 수련하다

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 1년도 안 돼, 수련생의 소개로 한 개인기업에서 일하게 됐고 다른 수련생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외지에서 휴대폰으로 진상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배워왔

롭히지.” 제가 “탈퇴하세요. 좋은 미래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자 그는 “그러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어르신은 이름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나도 당원이야. 우리 둘 다 간부야”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실명으로 탈당했습니다.

강가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곳의 한 사람과 말을 섞었는데 그는 다렌 부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보니 간부시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직휴양했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는 “좋소, 좋소, 탈퇴하겠소”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는데 입구에 계단이 있고 어떤 할머니가 올라가고 있기에 제가 한 손으로 끌어올려 드리며 “제가 좀 끌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 있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녀도 실명으로 중공 악당 조직에서 탈퇴해 평안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사람 하나 구하는 건 진실해야 해. 어물어물하는 사람은 기록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3) 공안 요원에게 진상을 알리다

한번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1미터 좀 떨어진 곳에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아기 어쩜 이렇게 예쁘니!”라고 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할머니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받아주기에 저는 즉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가 공안국 사람인 걸 알아봤는데 차고 있는 허리띠에 도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 제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좀 할게요. 삼퇴하면 목숨을 지킨다는 말 들어봤

어요?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면 좋은 미래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당신이 참 좋고 선량해서 말해주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난 당원이야. 곧 은퇴해, 두 달만 있으면 은퇴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법제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빨리 말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마치고 거기서 잠시 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해야 좋은 미래가 있어요”라고 했고 그는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탈퇴시켜 드릴게요. 실명으로 하실래요, 가명으로 하실래요?”라고 묻자 그는 “실명으로 해야지, 가명은 무슨? 내가 그놈들 무서워할까 봐? 그놈들이 나한테 아부라도 해야 할 판인데!”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공안국장이었습니다.

한 외지인이 시장에 식품을 사러 왔다가 제 노점에 와서 “이 누이 거 살게요. 딱 보니 깨끗하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물건을 사신다니 우리는 인연이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다 산 후 제가 “좀 쉬다 가세요”라고 하자 그는 “안 쉴래요”라며 자기는 스자좡(石家莊)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뭐 하러 왔어요?”라고 묻자 그는 “공안인데 경험 교류하러 왔어요. 파룬궁 잡으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알아요. 알긴 하는데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니깐요. 안 그러면 월급이 없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삼퇴를 이야기하자 말하자마자 탈퇴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은 ‘천안문 분신’ 같은 거 안 믿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안문 분신’은 가짜예요. 우리는 살생도 안 하는데 자살하겠어요? 자살은 큰 죄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요?! 잘 좀 보세요. 그건 연출한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마침 진상 자료가 있어서 꺼내 주며 “형수님도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를 데리고 제 노점으로 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큰누님한테 파룬궁 얘기 좀 해달라고 해. 당신도 탈퇴하게.”

4) 가는 곳마다 진상을 알리다

어머니가 읍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오가는 의사, 간호사 등 접촉하는 사람만 있으면 저는 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도와줍니다.

어머니가 수술하러 가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대법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실 테니 무섭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 수련하는 거 정말 좋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저는 원장, 직원에게 모두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